차익 실현과 단기 변동성 확대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도 출회로 변동성 확대. 원/달러 환율 급등도 부정적
외국인 순매도 업종은 펀더멘털에 이상 없음. 다만 급등에 따른 과열은 부담
글로벌 유동성 리스크도 부담. 다만 12월 이후 해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것

변동성 국면: 저가 매수를 모색할 필요

11월 들어 코스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11월 3일 종가 기준 4,221.87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직후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외국인은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전반적으로 매도 우위를 보였다. 특히 4일, 5일, 14일에는 순매도 규모가 각각 2조 원을 넘어 시장에 부담을 줬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불안도 커졌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외국인이 한국 주식에 부정적 시각을 가질 경우, 시장이 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국 관련 ETF에서 자금 유출이 나타나지 않았고, 국내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도 확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외국인 순매도가 왜 발생했을까. 최근 정황을 고려하면 단기 차익 실현 성격이 짙다. 외국인은 지난 2주간 반도체, 기계, 조선, 방산 등 주도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도했다. 그런데 해당 업종은 이익 전망이 개선되고 있어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단기적으로 RSI(상대강도지수)가 과열 구간에 진입해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할 만한 위치였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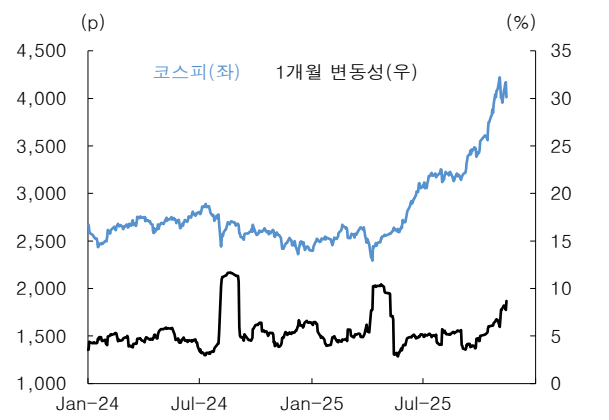
오히려 변수가 늘어난 게 매도를 자극했을 수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좌우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12월 10일 FOMC를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우세했던 금리 인하 전망이 최근 동결로 기울면서 통화완화 기대가 후퇴하고 있다. 지급준비금 감소와 단기 유동성 이슈로 시장 시선이 연준에 집중된 가운데, 전망 변화가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불리한 재료가 된 셈이다.

다만 12월 FOMC가 끝나면 불확실성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2019년과 2023년처럼 단기자금 조달 문제가 시장 전반을 흔드는 국면과는 거리가 있다. 미국 은행이 재할인창구를 적극 이용하려는 조짐도 없다. 잠시 불안한 흐름은 이어지겠지만 이번 구간을 잘 넘기면 시장은 다시 안정될 여지가 크다. 최근 변동성을 극단적인 위험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가격 부담이 완화된 업종을 선별해 저가 매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국면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김대준
daejun.kim@koreainvestmen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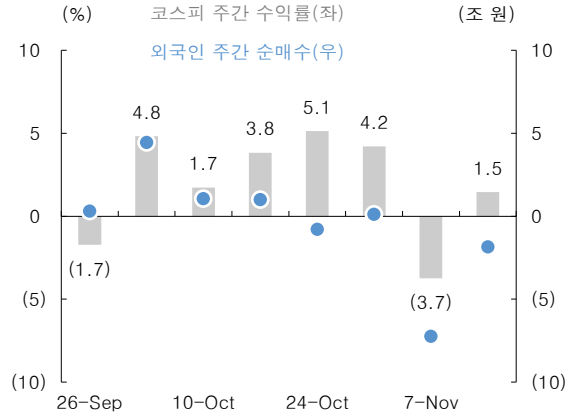
한국투자증권은 당사 고객 및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맺은 법인에게만 리서치 리포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사전 승인 없이 리포트를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및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림 1] 코스피와 1개월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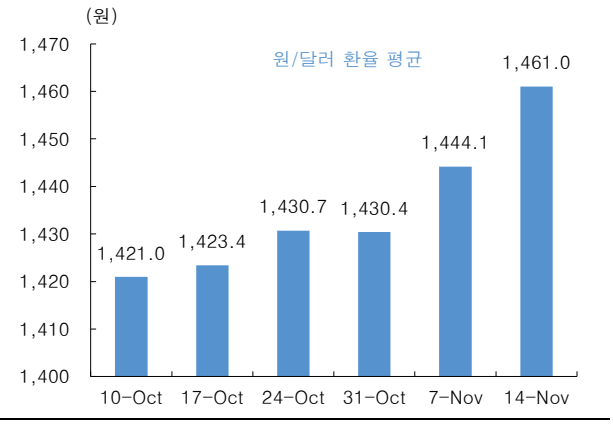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코스피 주간 수익률과 외국인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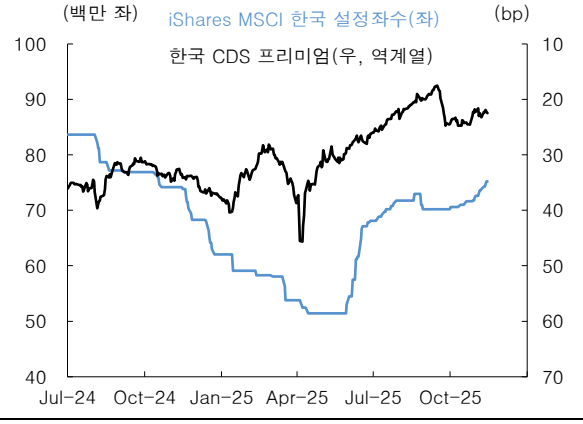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원/달러 환율: 주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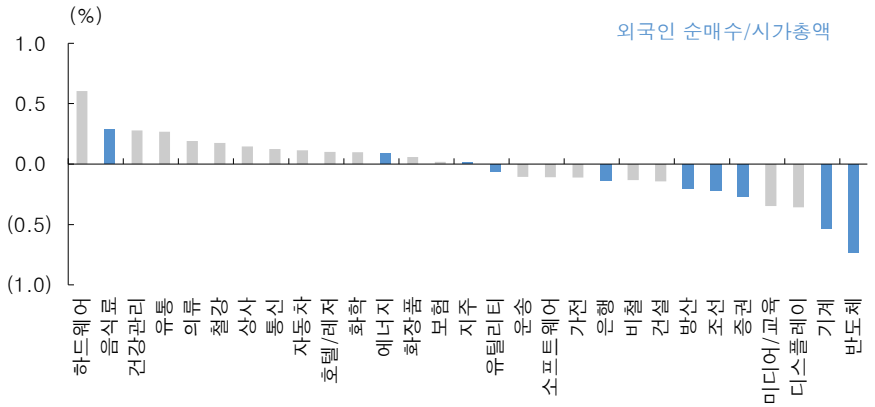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4] MSCI 한국 ETF 설정좌수와 CDS 프리미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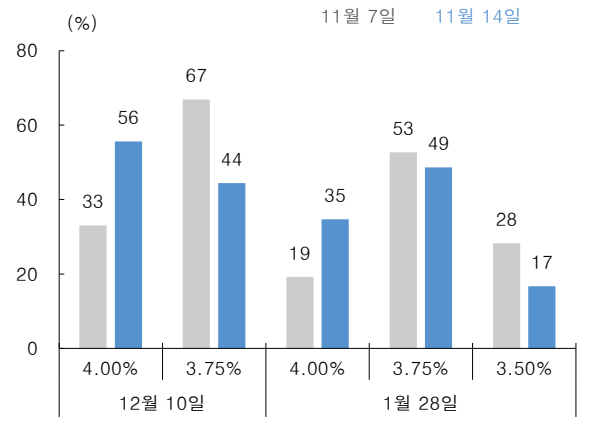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5] 업종별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순매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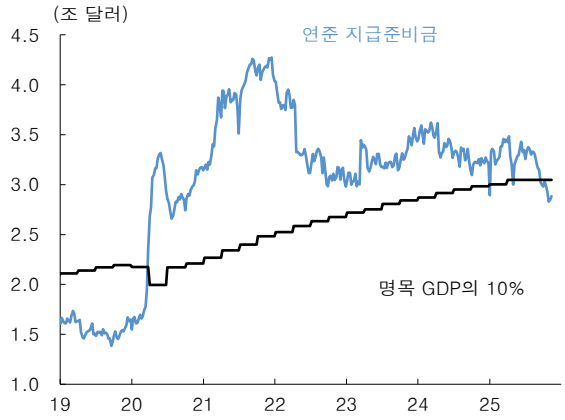
주: 시가총액은 10월 31일 기준. 외국인 순매수는 최근 2주 누적 기준. 청색 음영은 RSI 70% 이상 과열 업종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연준 기준금리 전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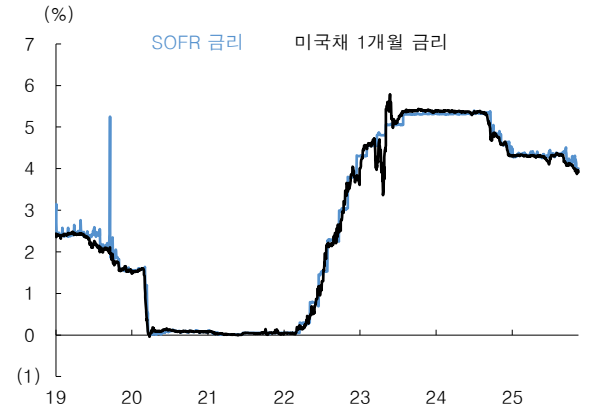
자료: CME, 한국투자증권

[그림 7] 연준 지급준비금: 명목 GDP의 10%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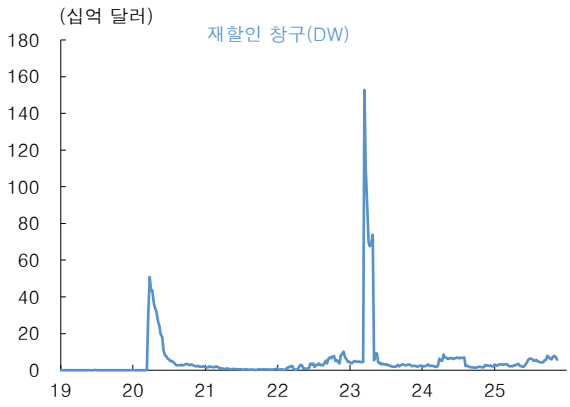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8] 미국 SOFR 금리와 국채 1개월 금리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9] 재할인 창구 잔고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본 리포트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리포트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리포트는 투자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